

대행 스님

이 우주 전체가 그대로 한마음으로 돌아가요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3(女) 스님, 저는 제가 체험한 걸 좀 얘기할까 싶어서요. 얼마 전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가다 보니까 집의 부엌에 개미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개미가 물에 씻겨 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는지라,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아휴, 개미야. 부디 네가 살 데서 살아 다오. 여기서 살지 말고 네가 살 곳에서 살아야지 왜 여기서 사느냐.' 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부엌에 들어가면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가게 가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아휴! 개미야.' 하는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발 거기서 나가 줘.' 하는 마음, 그러니까 무심(無心)에서 그게 일어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날 저녁에 집에를 들어가 보았더니 부엌 씽크대 위 같은 데 개미가 참 많았는데 개미가 없어진 거예요. 한 마리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머, 이상하다. 왜 개미가 한 마리도 없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개미가 좋아하는 설탕이니 빵 부스러기니 하는 거를 일부러 놓아 보았어요, 부엌에다가. 그랬는데 개미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개미가 안 오는 거예요. 부엌 옆에 다용도실이 있는데 거기에는 개미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며칠 지나면서 거기도 하나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은 그랬어요. '아! 이 마음과 풀 한 포기가 본래 하나로 다 연결이 돼 있다고 스님은 말씀하셨는데 아, 그런가 봐. 내 마음이 개미와 통했구나. 내가 그렇게 안타깝고 가슴 아파했던 게 개미하고 한순간에 통했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요, 그런 건지 아니면 개미가 여기가 살기 싫어서 간 건지….

큰스님 좀, 좀 믿어 봐요. 하하. 이 우주 전체가 그대로 한마음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고거 하나를 체험했을 때는 그 줄을 잡고선 자꾸자꾸 체험을 하고 가야 돼요.

질문자3(女) 네.

큰스님 풀 한 포기, 지렁이 하나, 또 진드기 하나, 그리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전부가 다 부처님의 뜻이니까, 전부 불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아니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연결이 돼서 돌아가니까. 그래서 우주와 직결이 돼 있고 세상과 가설이 돼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런 예가 있죠. 어느 스님이 중단을 다 치워 버렸어요, 부처님 한 분만 모셔 놓으려고. 그랬더니 자기 몸을 막 때려서 그냥 죽었대요. 그러니까 물건을 치우되 그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돼서 나한테로 다 넣고 그 물건만 치워야 되는데,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도 않는데서, 너는 너고 나는 나인 데서 치우니까 그쪽에서는 내 몸을 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속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화해서 보살이 되면 모든 각처 각급의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면서 벌써 무심 도리(無心道理)에서 중용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인간의 몸에도 모두가 응집을 해 가지고 같이 이끌어 주는 중생들이 보살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현(普賢)이라고 하는 겁니다.

질문자3(女)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 마음이 그 많은 개미에게 다 마음이 전달이 될 수가 있구나!' 하니까 이제는 풀 한 포기를 보아도 함부로 뜯지도 못하겠고, 어느 벌레 한 마리나 사람 누구를 보아도 나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큰스님 그러기에 옛날 선지식들은요, 짚신을 신고 방울을 달아서 저렁 저렁 저렁 하고 딛고 다녔어요, 미리 달아나라고. 그 소리를 듣고 밟히지 말고. 이 식물 하나 무정물 하나도 전부 나 아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 속 내면의 세계에서 나 아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기를 자기가 죽일 수는 없다는 결론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와도 낫게 되는 동기가 이 모든 걸 한마음 속에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다 하니까 자기가 자기 죽일 수가 없거든. 이래서 성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길을 막히게 할 수는 없거든, 또. 그러니까 길을 틔워 주지. 남이 사기를 치려고 할 때 여기선 벌써 알고 자기가 자기를 사기당하게 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싹 돌아서 옆으로 가게 만들지.

이렇게 묘한 법입니다. 강도가 칼을 들었다 하더라도 칼을 떨어뜨리는 법입니다. 이렇게 묘한 도리를 여러분이 몸뚱이 있을 때 알아야지 몸뚱이 없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부딪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러잖습니까. 죽어서도 중생의 의식이 그냥 있어서 여기서 그냥, 그림자 쫓아다니듯이 나와서 와글와글하니 한 발짝도 떼 놓을 수 없지, 또 강을 건너가려 하니 그 영혼이 자기가 이 몸뚱이가 있는 줄 알고 의식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빠져 죽을까 봐 건너가질 못하지. 배가 올 때를 기다리니 몇천 년을 그 강가에서 거닐고 있다 이 소립니다.

그리고 그 블랙홀이라는 불바퀴 속을 넘어서야 되는데 타 죽을까 봐 못 들어가지. 마음이라는 게 타 죽는 게 어딨고 타 죽지 않는 게 어딨습니까? 그래서 죽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다 이 소립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알고 보면. 개미 하나 그러는 것도 신기하죠. 그런데 만물이 다 나와 더불어 같이 놀게 되고 같이 작용을 하게 된다면, 하늘을 보고 기가 막혀서 앙청을 하고 땅을 보고 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을 겁니다, 아마.

질문자4(男) 제가 금방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질문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난 뒤에 일어섰습니다. 일어섰을 때에는 별생각 없이 나왔는데 현재 제가 느끼는 거는 심장 뛰는 것만 느껴지고 다른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불현듯이 한생각이 떠오릅니다. '이게 뭣고?'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지마는 '이게'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제가 여기 오게 된 그 어떤 인연은 있을 거라는 확신은 있지만 아직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걸 의심을 하면서 화두처럼 참구를 해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주인공에 맡긴다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지, 법을 설해 주십시오.

큰스님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뭣고' 도 그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이 뭣고'라는 말에 착이 붙으면 끊어질까 봐 두렵고, 또는 무기공에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이 뭣고? 이게 뭘까?' 하는 것에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는 겁니다. 당당히 '네가 있으면 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라.' 하는 것하고 '이게 뭣고?' 하는 것하고, 수박을 놓고 '이게 뭣고?' 하고 있는 거하고 그냥 칼로 탁 잘라서 먹어 보는 거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깐 놈의 거, 이래도 한세상 저래도 한세상인 것을 칼로 잘라서 죽으면 어떻고 살면 어떻습니까? 이왕지사 배낭 지고 한 번 나왔다가 이 모습은 원점으로 돌아갈 건데, 맛을 봐야 먹고 싶기도 하는 생각이 들지 맛을 보

☞ 18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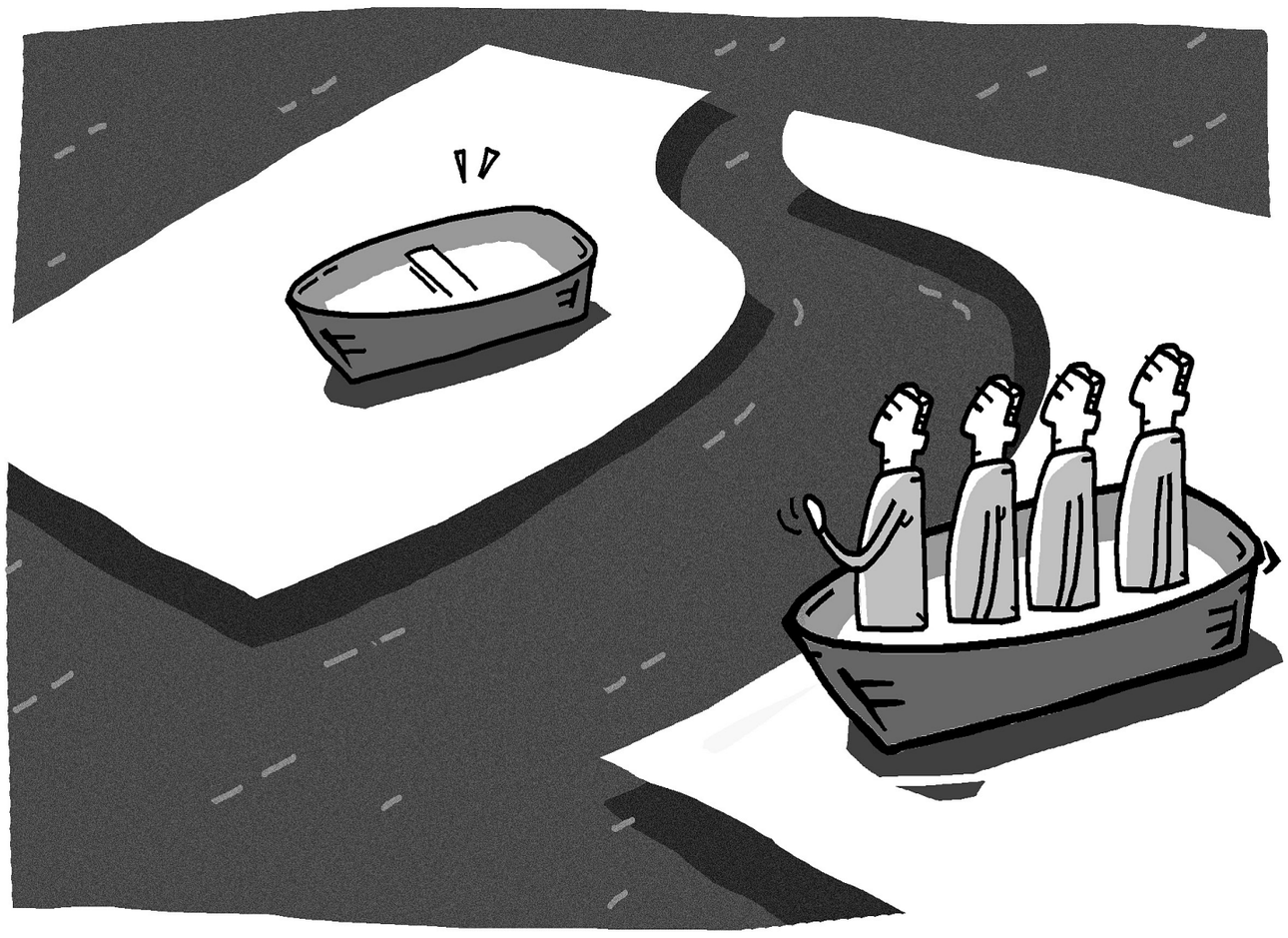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삶의 지혜를 일깨우는 진리의 말씀!

법구경



국문학자의 손길이 닿은, 적절한 현대어 선택과
운율을 고려한 번역! 늘 옆에 두고 경구처럼 읽고 되뇌면서
삶과 수행의 지남으로 삼을 가르침!

이종기 옮김/양장/360쪽/값 18,000원

명나라 4대 고승 감산대사의 주석!

수능엄경통의 1·2



불교의 철리와 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수행자들의
필수 지침서! '일심삼관一心三觀의 종지'로 원융회통한,
"교법의 준칙이요 선종의 정안正眼!"

감산 덕청 지음/장순용 역주/양장/1권 27,000원/2권 25,000원

방거사의 어록과 시 전편 한국 최초로 완역!

방거사 어록·시역주



이제껏 『속장경』의 방거사어록 3권 중 상권의 어록만
소개되었는데, 중·하 권의 시게詩偈와 찬문의 완역으로
드디어 방거사의 진면목을 만나다!

강승욱 역주/양장/528쪽/값 27,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